

“관람객도 작품...예술에 완성은 없죠”

미리 보는 2016 광주비엔날레

〈5〉 참여작가 인터뷰-베른 크라우스

등산 모티브 작업 무등현대미술관에 작품 설치
밭줄·나무토막·고추씨·‘정원 아닌 정원’ 선배
“관람객들 가위로 잔디 깎아 작품 참여 가능”



2016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베른 크라우스가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예술은 완성이 없어요. 관람객들이 보고 감상하는 것 자체가 작품 일부예요. 개인마다 느끼는 점이 다름이니 작품은 항상 변화하고 있어요. 작가가 작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관람객들이 다르게 느꼈더라면 그것도 정답입니다. 작품은 항상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

20일 무등현대미술관에서 만난 네덜란드 출신 ‘2016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베른 크라우스(Bernd Krauss·48)는 “예술은 완성된 작품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마리아 린드 총감독과 견해가 일치했다. 베른 크라우스 작가와 마리아 린드 총감독은 오랜 시간 북유럽에서 함께 활동하며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광주에 머물며 작품을 설치중인 베른 작가는 ‘정원이 아닌 정원(T.U.N. Tradgard Utan Namn)’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고 정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에 붙인 이름이었다.

작품을 살펴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전시장 중앙에는 정사각형 이불이 놓여 있고 약 200m 길이 밧줄이 바닥에 펼쳐져 있다. 밧줄은 중간중간 세위진 높이 10cm 나무토막을 한 바퀴 두르기도 하고 손질하고 남은 고추씨와 꼭지를 감싸고 있기도 했다. 한쪽 벽에는 농기구 갈퀴가 세워져 있었다.

“미술관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등산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멀리 무등산이 보이고 인근에는 등산용품점이 많이 위치해 있었어요. 크게 등산을 콘셉트로 잡자고 생각했습니다. 밧줄은 정승규 무등현대미술관 관장님과 양동시장에서 구입했고 나무토막들은 주변에서 주운 것들이예요.”

베른은 ‘갑치 플레이스(place)’란 단어를 자주 언급했다. 전날 들른 인근 분식집 앞에서 분, 고추를 말려놓은 장소를 이르는 말이었다. 전시장에 놓인 고추씨와 꼭지는 말린 고추를 다듬는 모습이 신기했던



베른 크라우스가 무등현대미술관에 설치한 ‘정원이 아닌 정원’ 작품 일부. 미술관 앞 잔디를 깎아 여성 머리를 형상화했으며 관람객들도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

베른 작가가 얻어 온 것들이었다.

작품은 멀리서 보면 베른 작가의 광주 행적을 알 수 있는 지도였다. 베른 작가는 정원을 산책하듯 관람객들이 밧줄을 따라 걷거나 중간중간 세워진 나무토막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밭줄 끝에는 가위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갑자기 가위를 들더니 정문 앞 잔디 일부를 깎으며 관리하기 시작했다. 잔디를 작품 소재로 활용하려는 생각이었다. 전시장에서 시작된 작품은 정문 앞 잔디를 거쳐 무등산까지 포함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과의 소통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잡려진 잔디를 모은 작가는 전시장 안으로 가져가더니 여자 머리 모양으로 놓았다. 동전으로 눈·코·입을 표현한 점이 재

미있었다. 전시 기간 관람객들은 누구나 가위를 가지고 잔디를 깎아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어 베른 작가는 손을 펴더니 금빛으로 빛나는 손톱크기 세모뿔 모양을 보여줬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초콜릿 포장지로 만든 작은 산이었다. 관람객들도 초콜릿을 먹고 남은 포장지로 원하는 산 모양을 만들어 전시할 수 있다.

베른 작가는 정승규 관장 작품이 전시된 2층과 옥상, 주차장도 활용할 계획이다.

“9월말까지 머물며 상황에 따라 작품 배치를 꾸준히 바꿀 계획이에요. 아직 한국 가을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구성할지는 모르겠어요. 예술엔 정답도, 완성도 없으니까요.” /김용희기자 kimyh@

머리카락, 예술작품이 되다

광주 북구 미용인 18명 참여
30일까지 미용박물관 전시회



김명희 작 ‘나빌레라’



김진숙 작 ‘봄 꿈 속을 거닐다’

푸른 배경을 바탕으로 고목 위 붉은 꽃이 화려하다. 어찌보면 낯익은 모습이기도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된다. 화폭에 등장하는 건 모두 머리카락이다. 붉은 꽃잎도 머리카락을 염색해 만들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용인들이 작가로 데뷔했다. 자신들의 일상과 땀 수 없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작품들을 통해서다.

한국미용박물관은 지역문화예술체험 전시 기획전 ‘머리카락 예술의 신비’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현자·이순·소정애·이윤심·박경화·배연희·김명희·정은희·이근순·홍서씨 등 대한미용사회 북구지회 회원 18명이 참여했다.

모두 미용 관련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바쁜 일상을 쫓아 대한민국미용

명장 1호 김진숙씨에게 지도를 받았다. 김씨는 오래 전부터 머리카락을 활용한 작품들을 제작해 오고 있다.

광주 북구청 맞은 편에 위치한 한국미용박물관(관장 이순)은 지난 2014년부터 전시영의 미디어 아트와 박물관의 만남을 통해 역사와 미술이 만나는 융복합 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2-514-66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 청년작가 6명 ‘라오스 예술검객’전

31일까지 갤러리D

지역 청년작가 6명이 라오스 여행을 작품으로 들려주는 ‘라오스를 간 예술검객’전이 31일까지 갤러리D에서 열린다.

서지안 큐레이터가 기획을 맡은 ‘예술검객(藝術劍客)’ 시리즈 전시는 문화기행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2014년 6월 ‘상해에 간 예술검객’전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 ‘제주에 간 예술검객’전을 진행했으며 이번이 세번째다.

김동아 작가는 라오스 루앙프라방 광시포포를 모티브로 자연 순수함을 표현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한다. 김은영은 현대인의 ‘희노애락’을 부영이와 율배미에 빚대 묘사한다. 그림의 미학과 함께 따뜻하고 소박한 라오스 삶과 가치관을 전달한다.

성혜림 작가는 ‘라오스 부다파크’를 출품한다. 대형 부처상 앞에 서있는 여자들이 통해 라오스에서 느꼈던 여유를 전한다.



성혜림 작 ‘라오스 부다파크’

임기준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My Temple’은 라오스 곳곳에 자리한 사원을 모티브로 라오스 문화와 신앙, 믿음을 표현했다. 문의 010-8618-766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찬미 첼로 독주회

9월 1일 유·스퀘어

박찬미 귀국 첼로 독주회가 오는 9월 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졸업 후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에서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마친 박씨는 독일을 중심으로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은 베토벤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 ‘연인인가 아내인가’ 주제를 의한 12개 변주곡, 프록코피에프의 ‘첼로 소나타 C장조 Op.119’,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Op.65’ 등이다.

피아노 반주는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한 박미정씨가 맡았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4301-192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매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http://jinhan-shona.blog.me>

박물관 시낭송콘서트 금남로 연가

- ◆ 일시 | 2016년 8월 31일 오후 6시
- ◆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운영위원회
- ◆ 주관 | 서구문화원 다솜 시장소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로연 1층)

효안하모니시리즈 37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자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헌법을 보면,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으로 건국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다른 나라들은 건국일, 정부 수립일을 기념하고 자란다. 대한민국은 건국일을 기억하지도, 건국 기념일을 지키지도 않는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역사적으로 그 날이 타당하다면,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으로 건국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다.

- | | |
|--|---------------|
| 1. 조선왕조 건국 | 1392년 7월 17일 |
| 2. 대한제국으로 국호 변경 | 1897년 10월 12일 |
| 3. 경술국치 | 1910년 8월 29일 |
| 4. 3.1독립운동 | 1919년 3월 1일 |
| 5.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초대대통령 이승만 박사) | 1919년 4월 13일 |
| 나라를 빼앗기고 건국이 되지 못함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일까지 독립 운동을 함 | |
| 6. 해방 | 1945년 8월 15일 |
| 1) 1945년 태어난 사람을 광복둥이라고 하지 않고 해방둥이라고 함 | |
| 2) 1946년과 47년 8.15행사의 공식 명칭은 “해방 기념식”으로 사용 | |
| 3) 정부도, 언론도, 정치인도 “광복기념식”이라고 하지 않았음 | |
| 4) 1982년까지 국사 교과서도 1945년 8월 15일을 “해방”으로 가르침 | |
| 5)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주권은 없었음 | |
| 6) 남과 북은 신탁통치 아래 놓임 | |
| 7. 대한민국 건국 및 정부수립 | 1948년 8월 15일 |
| 1)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 | |

- 1948년 7월 1일 제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함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 1948년 7월 20일 이승만 박사를 대한민국 건국초대대통령으로 선출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
- 1948년 8월 15일 자정을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함
- 1949년 8월 15일 8.15기념식에 드러난 역사 이해
- 이승만 대통령: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
- 우익인 민주국민당 당수 김성수: “금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한지 만 4주년이 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지 1주년이 된다.”
- 좌익인 사회당 당파: “8.15는 우리 민족 해방 4주년 기념이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다.”
- 경향신문 1949년 8월 15일자: “독립 1주년”, “건국 1주년”, “광복 돌맞이 1주년”으로 표기
-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도 1948년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제출한것을 국회에서 광복절로 수정 통과한 것임
-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도 통진당 판결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명시함

2016년 8월 15일은 해방 71년, 대한민국 건국 68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국민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역사는 나라의 얼이다.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를 바로 전수하자. 매해 8월 15일을 광복절과 건국 기념일로 자라자. 8.15 광복절은 해방 기념일이고,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다.

최성규 목사
성산유물문화재단 대표회장
한국유물문화재단 대표회장
(재)성산유물문화재단 이사장
(사)한반도평화통일협력포럼 이사장
(재)성산유물문화재단 이사장
인천순복음교회 담임회장